

광주·전남 소상공인 3명 중 1명 “연매출 2천만원도 안돼”

호남통계청, 소상공인 경제 변화상 발표...광주·전남 사업체 42만7000개 개·폐업률 줄고 개업 1~3년 내 폐업률 가장 높아...도매·소매업 비율 1위

광주와 전남 소상공인 3명 중 1명은 연매출이 2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업 후 1~3년 안에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가장 많고, 도·소매업 종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호남지방통계청이 7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제 변화상'에 담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광주

와 전남지역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각각 18만2000개, 24만5000개였다. 종사자는 광주 7만2000명, 전남 8만6000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5년과 견줘 광주는 29%(4만1000개), 전남은 34.6%(6만3000개) 증가한 수치다.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광주는 30.9%가 2000만원 미만으로 가장 많았다. 2000~5000만원 미만은 21.5%, 5000만~1억원

16%, 1억~2억원 미만 13.5%, 2억~10억원 미만 15.3%, 10억원 이상 3%였다. 전남 역시 2000만원 미만이 32.7%로 가장 많았고, 2000만~5000만원 미만 21.1%, 5000만~1억원 미만 15.1%, 1억~2억원 13.8%, 2억~10억원 14.4%, 10억원 이상 2.8%였다. 광주와 전남은 2015년과 비교해 개업과 폐업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소상공인 폐업률은 13%로 2015년 18.3%보다 감소했고 개업을 또한 13.8%로 2015년(16.1%)보다 감소했다. 전남은 2015년 폐업률 15.2%, 2021년 10.8%로

4.4%포인트 감소했고, 개업률도 14.2%에서 12.6%로 줄었다. 광주에서 폐업한 사업체를 살펴본 결과, 1~3년 사이 폐업한 비율이 32.6%로 가장 높았고, 1년 미만이 25.7%, 3~5년미만은 15.4%였다. 전남도 31.5%가 1~3년 내에 문을 닫았고, 23.5%가 1년이 채 되지 않아 폐업했다. 소상공인의 업종은 두 지자체 모두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았다. 광주지역 3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23.1%), '부동산업'(19.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8.7%)이었고 전남은 '도매 및 소매업'(22.1%), '전기·운수·통신·금융업'(16.6%), '숙

박 및 음식점업'(14.7%)이었다. 광주와 전남에서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시 광산구였다. 광산구 5만966개, 광주시 북구 4만9730개, 광주시 서구 4만2782개 순으로 많았다. 반면 사업체가 가장 적은 곳은 전남 구례군(3082개)이었고 곡성군이 3431개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과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전, 전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전기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2023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에서 단체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한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제공>

한국전력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2023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에서 단체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재해 예방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선정해 대통령상을 수여하는데, 한전 전기본부는 혁신적인 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시민재해 예방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상 수상은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한전은 지난해 1월 대국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현장 중심의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전 직원이 '효율'에서 '안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 조직문화를 안전문화로 바꾸기 위해 다양

한 안전문화 캠페인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준호 한전 안전·사업부장은 "안전은 그 무엇보다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되새기면서 국민 안전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농협-진도농협,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2023년 광주농협·진도농협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햇건고추 판매 2023. 9. 7.



개점 2시간 만에 햇건고추 완판
광주농협은 7일 본점에서 진도농협과 함께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순택 광주농협 조합장과 노춘성 진도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직거래 장터는 큰 호응 속에 개점 2시간 만에 햇건고추 4000근이 완판됐다. 건고추는 중간 유통과 정량이 직거래로 판매해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근

당 1만5000원에 판매되며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직거래는 진도지역 농가에는 소득향상, 광주시민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행사가 그 의미를 더했다. 김순택 조합장은 "광주농협은 농업인과 도시민에게 상생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농업인과 도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정보산업진흥원, 'K-ICT WEEK in BUSAN' AI 기업 6곳 참여



'2023 K-ICT WEEK in BUSAN' 내에 마련된 '광주 AI 의료헬스케어 산업관' 부스. <GICON 제공>

AI 의료헬스케어 산업관 운영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7일 광주 AI 기업 6곳이 '2023 K-ICT WEEK in BUSAN'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대신정보통신·티맥스인공지능개발센터·인비즈·인디제이·이코르·바이오브레인 등 광주지역 6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광주 AI 의료헬스케어 산업관' 내에 전용 부스를 마련해 AI와 결합한 의료헬스케어

분야 기술 및 서비스를 뽐낸다. 이경주 원장은 "지역 최대 규모 ICT 전시회에서의 '광주 AI 의료헬스케어 산업관' 운영은 광주 AI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을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 AI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진흥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K-ICT 위크 인 부산'은 동남권 최대 ICT 종합행사로 국내외 기업과 기관 등 총 267곳이 참가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효성, '자원 순환의 날' 환경 보전 활동 동참

효성그룹 임직원들이 '자원 순환의 날'(9월 6일)을 맞아 환경보전 활동을 펼쳤다. 효성은 지난 6일 자원 순환의 날을 맞아 ㈜효성, 효성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효성화학(주) 등 효성그룹 임직원 45명이 반포한강공원에서 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자원 순환의 날'은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가 매년 9월 6일, 지구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이날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미래한강분부는 반포한강공원에서 '노플라스틱 한강! 모두모아 페스티벌'을 열고 서울 시민들과 함께 친환경 실천 챌린지를 진행했다.

효성그룹 임직원 45명도 이 행사에 참여해 반포한강공원에서 줍깅에 참여했다. 줍깅은 '줍다'와 '조깅'의 합성어로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일을 말한다. 이밖에 환경 퀴즈를 풀고, 수거한 쓰레기를 분리하는 등 환경을 위한 활동에 참여했다. 한편, 효성그룹은 매년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효성첨단소재(주)는 반려 해변인 인천 영종도 용유해변에서 정기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효성첨단소재와 효성화학 임직원이 각각 마포대교 북단과 한강 반포지구에서 줍깅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법집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